

추석 명절 가정에배

목	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01장	다
기	도	가족
성	경	봉	독	골로새서 3:15~17
설	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
축	복	기	도	인
찬	송	559장	다
축	도	집



☀ 골로새서 3:15~17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추석 가정에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모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화나 불만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가정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하늘의 조건을 다 통제할 수 없듯,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